

병해충 피해 선제적 대응

익산시, 발빠른 대응으로 정부로부터 농업재해 인정... 농가 2538곳 41억원 규모 지원

익산시가 지난해 발생한 병해충 피해 지원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농업재해를 인정한 정부는 피해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정현을 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가장 먼저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얻어낸 결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28일 지난해 가장 피해가 컸던 오산면을 비롯한 지역 농민들은 정현을 시장과 면담을 갖고 발빠른 대응으로 병해충 피해 지원을 받게 된 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9월 병해충 발생 직후 피해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가장 먼저 현장 행정에 나서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당시 정 시장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피해복구를 위한 조사와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시는 약 20일에 걸쳐 피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북도와 협력해 정부에 복구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재해로 인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시는 피해 농가에 국비를 포함한 41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투입한다. 대상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병해충 발생으로 재난지수 300 이상인 농가다. 익산지역 피해 농지는 4,838ha, 2,538 농가가 해당된다.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재난지수 100~300 미만인 농가 708곳, 224ha는 별도로 시비 1억5천만원을 책정해 누수 없는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2월 중 재해복구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들은 "다른 지역은 피해 발생 초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복구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익산은 그 어떤 곳보다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응을 해줘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며 "발빠르게 현장에 나서 준 정현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KB국민은행, 희망친구 기아대책(NGO단체)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사랑나눔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

군산시, 소외계층 100가구에 식품꾸러미 전달

군산시는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KB국민은행, 희망친구 기아대책(NGO단체)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사랑나눔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KB국민은행 군산의산지사 이근배 본부장 기아대책 사회가치사업본부 오병상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통시장 사랑나눔 행사'는 KB국민은행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협력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은누리 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식품꾸러미 100상자(57만원 상당)를 구입해 관내 소외계층에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장영재 복지환경국장은 "겨울철 추위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소외계층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며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청소년 지원 대표사회공헌사업을 KB Dream Wave 2000으로 재정비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또한 진행 중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학교 우유 급식 지원 확대

교육지원청과 협의 통해 지원 필요한 학생 적극 발굴

익산시가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공급과 우유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우유 급식에 대한 무상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올해 총 사업비 약 10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총 106개교·7,989명에게 우유 급식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이 1천274명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장 추천 학생 등)으로 100%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가

공급된다.

특히 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학생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우유는 등교일과 휴일·방학 기간 등을 포함해 연간 250일 내외로(200ml/개당 480원) 지원되며, 대상 학생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상 우유 급식과 유상급식을 병행해 실시한다.

부득이하게 무상 우유 급식만 실시

하는 학교에서는 가정배달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필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무상 우유 급식은 필수 영양소 섭취가 꼭 필요한 학생들의 성장기 발달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며 우유 소비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낙농산업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국민체육센터, 긴급 사고 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진행

군산국민체육센터가 '익사사고' 제로 실천을 위해 휴장기간동안 긴급 사고 상황 대비 교육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국민체육센터는 휴장기간을 활용해 실내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과 수영지도자 6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실습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실습과 익수자 구조 실습 등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년간 인명구조 활동과 응급처치·수상안전·생존수영 강사 경력의 풍부한 익수 수영지도자를 통해 심폐소생술 이론과

실습기기를 이용한 심정지 환자(성인·유아)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제세동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익수자 구조 방법 실습, 기도폐쇄 처치법(하임리히법)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 강사는 "실내수영장 사고 유형은 신장보다 깊은 곳에 입수하여 발생하는 사고, 다이빙 시 발생하는 사고, 수영장 내 미끄럼 낙상사고, 입수 중 심장이상·경련 등 신체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있다"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119대원 도착 전까지 초기대응 및 골든타임(4분)을 사수해 소중한 생명

이 소생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습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명구조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시 체육진흥과장은 "연이어 월명수영장과 해양레포츠센터 및 야외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 및 수영지도자 교육도 시행 예정"이라며 "향후 이용객 맞춤형 수영 실력 향상을 위한 영법 교육,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생존수영 교육,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수상안전 교육 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코로나19 사각지대 핀셋 지원

익산시가 코로나19 선별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핀셋 지원에 나선다.

시는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코로나19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천여곳에 60만원씩을 집중 지원해 위기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돕는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익산시 관내 시장 상인회 가입된 ▲노점상(주민등록상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전북도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 ▲어린집, ▲한옥체험시설, ▲외국인도시민박시설, ▲일반유원시설(실내놀이시설 등),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편의점 등이다.

특히 정부의 방역지원금이 개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미지원으로 차등 지원됨에 따라 형평

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관내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공공시설 폐쇄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빠진 시설에 운영 중인 사업체(연의점 등)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및 지급 시기는 명절 이후 2월 중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면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일일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지원 액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놓인 대상자를 지속 발굴,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배달의 명수, 새해 설맞이 경품이벤트 진행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새해를 맞아 '우리 골목 시장님들과 함께하는 새해 설맞이 경품 이벤트'를 28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명절 연휴 기간 배달의명수 앱을 이용해 2회 이상 주문한 경우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이벤트 기간이 끝난 후 추첨을 통해 총 463명의 당첨자를 선정,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1등 무선청소기, 2등 무선이썬(에어팟 등)을 비롯해, 군산 지역에서 생산한 여간장, 수제한과 세트, 잠곡 선물 세트를 3위부터 5위까지 지급하고, 6등은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김현석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그동안 배달의명수와 함께해준 소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설 명절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

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농가는 물론 귀성객과 시민 모두에게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농가는 물론 귀성객과 시민 모두에게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높고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이다.

특히, 충북지역까지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 남하 확산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는 1월들어 오리 및 산란계 농장에서 5건이 발생하는 등 병원체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는 차단 방역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 방문 자제 및 농가 단위의 차단방역 수칙 이행 협조를 SMS, 마을방송,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